

이경해 열사 기념사업회 발족에 즈음하여



WTO! 세계화의 진실

WTO란?

“WTO kills Farmers”. 허울뿐인 세계화를 반대하고 강대국 중심의 무차별적인 농산물 수입개방을 저지하기 위해 산화하신 이경해 열사의 ‘WTO가 농민을 죽인다’는 외침이 아직도 귓전에 맴돈다. 이경해 열사는 WTO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화가 전세계 민중들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다국적 기업과 자본을 대변하며, 농민을 비롯한 정치, 경제적 약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호에서는 열사의 숭고한 애국·애족·애농 정신을 추모하고 그 뜻을 모아 우리 농업과 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알려내기 위한 ‘이경해 열사 기념사업회’가 설립되는 취지에 맞춰 다시한번 WTO와 세계화가 어떤 것인지, 그 실체와 의미에 대해서 짚어 보았다.

WTO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GATT를 먼저 알고 넘어가야 한다. 그 이유는 GATT가 WTO의 전신이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1939~1945년) 이전의 세계 각국은 저마다 자국의 산업과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문을 닫고 있는 이른바 ‘보호무역주의’를 선택하고 있었다.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 강대국의 상품들이 약소국들의 시장을 장악하여 경제식민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은 이를 통제하고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새로운 무역의 형태와 방식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1947년에 만들어진 것이 ‘GATT’였던 것이다. 출범 당시에 밝혔던 취지는 ‘2차 세계대전 이전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무역자유화를 추구하자’는 것이었다. 다분히 강대국 중심적이었다.

GATT체제에서는 공산품의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 완화를 원칙으로 했다. 다행히도 이때에는 농산물은 다자무역규범에서 제외가 되었다. 농산물이 무역자유화에서는 제외가 되었다더라도 이 당시 강대국들은 자국의 공산품으로 충분히 이익을 챙길 수 있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보다 강력한 교역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은 공산품으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 농산물 수출국가들과 특히 최대 농업국가인 미국이 더 이상 공산품 수출로 재미를 보지 못하게 되었고 자국내 농산물 과잉재고 처분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농산물 중심의 교역체계를 구축 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 결과 1982년부터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을 시작했다. UR은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등을 비롯한 거의 모든 무역정책 현안을 포괄하고자 했다. 특히 농산물, 의료, 교육, 심지어 방송까지 교역에서 예외는 없었다.

결국 1994년 4월에 UR협상에서 125개국의 협상참여국들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에 합의했고 1995년 1월 1일 우리의 골치를 썩이고 있는 WTO가 탄생하게 되었다. 물론 공산품과 중공업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도 가입이 되었다. WTO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과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그리고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이 3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GATT체제에서는 없었던 분쟁해결기구가 도입돼 명실상부 강력한 세계화 추진의 핵이 되었다.



◀용어해설▶

- 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 GATT : General Agreement of Trade and Tariffs; 관세무역일반협정
- 보호무역주의 : 교역에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자 수입을 축소하는 무역 행위
- 비관세장벽 : 관세이외의 무역장벽을 의미, 수량제한 · 수입허가제 · 각종 수입과징금 · 검역강화 등으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NTC : (비교역적 관심사항) 식량안보, 환경보전, 고용유지, 지역개발, 문화적 가치 등 농업이 지닌 고유한 역할로서 교역을 통해 이룰 수 없는 가치
- 지적재산권 : 새로운 기술이나 기능 등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

시애틀과 칸쿤의 함성, 뉴 라운드에 저항하라!

1999년 11월 말 시애틀 거리. 전 세계의 반세계화 운동가들이 속속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WTO의 3차 각료회의를 저지하기 위함이었다. 1995년 UR에서 WTO가 출범되어 1996년 싱가포르에서 1차 각료회의를 가진 WTO는 1998년 5월에 제네바에서 2차 각료회의를 개최했다. 그 후 3차 회의인 시애틀 각료회의에서는 본격적으로 농업과 서비스 등의 민감부분에 대한 교역 합의를 진행하기 위한 각료선언문을 채택하고자 했다. 그것이 이른바 '뉴 라운드' 또는 '밀레니엄 라운드' 출범이었다.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무관세 달성, 국내보조의 대폭감축, 시장접근물량의 확대였다.

그러나 3차 각료회의는 농산물 보조금에 대한 미국과 EU의 견해차와 미국의 노동시장개방에 대한 개도국들의 반발, 그리고 거리로 모여 반세계화를 외치는 비정부기구(NGO) 운동가들의 거센 저항 때문에 실패했다. 이 때 모여든 85,000명 반세계화 운동가들은 WTO 개막을 저지했을 뿐 아니라, 12월 3일 금요일 저녁에는 결국 각료회의 자체를 무산시켰다.

시애틀 회의의 실패한 WTO는 2년 뒤인 2001년 11월 중동지역의 카타르 도하에서 결국 뉴 라운드 출범을 내용으로 하는 각료선언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뉴 라운드가 지나치게 강대국의 이해만을 대변한다는 개발도상국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라운드라는 이름을 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하개발아젠다(DDA)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농산물 등의 주요 쟁점에 대한 각료선언문의 합의 도출은 2002년부터 3년간 DDA 협상을 진행하여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작년 9월 자그마한 멕시코의 휴양도시인 칸쿤에서 열린 제 5차 각료회의가 바로 각료선언문의 주요 쟁점을 다루는 회의였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5차 회의도 선진국과 농업수출개도국의 의견 대립, 싱가포르이슈에 대한 합의 도출 실패, 그리고 이경해 열사의 숭고한 희생에 의해 무산되고 말았다.

세계화를 하면 더 잘살게 되는가?

DDA를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 등 강대국들은 DDA가 전 세계의 나라들이 자유무역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도록 해, 후진국 또는 개도국의 민중들의 삶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른바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세계화만이 인류를 모두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공평성을 가장한 무차별적인 자유무역은 결국 팔아먹을 것이 없는 후진국이나 개도국들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결국 팔아먹을 것이 많은 선진국과 막강한 국제적인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의 배만 불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각국의 노동자, 농민 단체들이 "세계화는 초국적 자본의 이익만을 위한

이경해 열사기념사업회 활동 방향



것”이며, “모든 나라의 민중들과, 특히 가난한 나라들의 전통과 고유한 권리들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는 이유이다.

‘이제 진실을 말하라, 그리고 농업을 협상에서 제외하라.’

이경해 열사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사무총장에게 전달한 자필편지의 제목이다. DDA에서 교역범주에 포함시킨 항목 중 공산품, 농산물, 교육, 문화, 노동, 정보, 방송 등 중에서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농산물이다. 비단 자국 농민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이라는 당연한 명제 말고도, 농업을 개방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수히 많다.

처음 GATT체제가 만들어지면서 농산물을 제외했던 이유는 따지고 보면 강대국들의 필수적인 요구사항이 아니었던 것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Ⅰ.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각종 농업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 농업·농촌·농민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 농업통상 정책 실태 조사·연구
- 국제 학술행사 개최
- 농업통상에 대한 이해와 교육을 통한 올바른 방향 정립

Ⅱ. 이경해열사기념관 건립

- 농민운동 관련 각종 조사·연구 자료 전시
- 이경해 열사의 생전 유품 소장
- 열사 정신계승에 부합하는 각종 기념·전시사업

Ⅲ. 이경해 농민상 제정·수여

- 농업·농촌·농민 발전에 공헌한자를 대상으로 한 이경해 농민상 제정
- 농업·농촌·농민 발전에 기여한 국내·외 인사 선정 수여

Ⅳ. 이경해 장학기금 등 포상

- 이경해 열사의 교육관에 부합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및 포상 전달
- 농업계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중 성적우수자를 대상으로 장학금 전달
- 열사정신 계승 글짓기 대회 등을 통한 각종 포상

Ⅴ. 각종 출판·문화사업

- 열사정신을 계승하는 각종 홍보·출판사업
- 국내외 농민운동 사례를 취합한 농민운동 백서 발간
- 이경해 열사 평전 및 다큐멘터리 제작·발간

Ⅵ. 국내·외 유관 단체와의 연대사업

- 열사정신계승을 위한 국내·외 단체와의 연대 구축
-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국내·외 유관 단체와의 연대구축



◀ 지난해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WTO 제5차 각료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하던 이경해 열사. 이날 열사는 결국 우리 곁을 떠났다. '뒷일은 후배들에게 맡긴다'는 말을 남긴 채...

이유는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 식량안보적 차원 등의 중요성 때문이다. 이 글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미 농업은 세계화라는 도마 위에 올려졌고,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있다. 극복 방법은 당연히 이경해 열사의 가르침대로 WTO에서 농업을 제외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WTO 모범생이다'. 현재 경제계와 정부는 '경쟁력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에 편입하여 혜택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낮은 농업은 포기가 불가피하다'며 농민들의 생존을 저버리고, '시장지향적인 농산물 무역체제의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농업포기의 결과는 오히려 무역수지 적자로 되돌아왔다. 물론 DDA 보다는 단편적인 예이지만 올해 초 차디찬 여의도 아스팔트 위에서 절절히 반대했던 한·칠레 FTA의 결과는 적자였다. 지난 4월 한 달간 칠레와의 무역에서 수출 6천 27만 달러, 수입 1억 9천 2백 67만 달러로 1억 3천만 달

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했고, 4개월 동안 4억 7천 만달러(2003년 對칠레 전체 무역적자의 90% 수준)의 적자를 기록했다. 세계화를 위한 농업포기가 반드시 국익이 아니라는 것, 국민 전체에 더 많은 부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열사정신 계승하여
WTO-세계화에 저항하라!**

이제 우리는 이경해 열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려 했던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진실을 알고 있다. 우리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을 보다 굳건히 하기 위해 '이경해열사기념사업회'를 발족했다. 물론 그 사업이 단 번에 WTO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농민과 민중을 보호하는 것에는 미흡할지라도 우리는 열사를 기리며, 열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WTO의 허울을 알려내고 농업회생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인농연**